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2주년 추모식

추모사

오늘, 우리는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의 탄신 122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말, 항일 의병장이셨던 기삼연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깨우치신 선생님께서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듬해 중앙중학 교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데 남다른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중앙중학은 3.1독립운동의 모의처로서 선생님께서는 당시 독립운동의 사전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그로인해 1년 반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감이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신 후, 30여 년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선생님께서는 8·15 광복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을 결성,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광복 직후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추진세력의 결집에도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셨던 관용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광복직후에 집필하신 명논설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 취지서를 통하여“우리의 정부로는 기미독립 이후로 구현된 대한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라 역설하시고,

“파당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타당한 대의명분”이라시며 일찌감치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강조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셨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임시정부가 내세운 분단극복과 통일정부 수립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참으로 깊은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겨레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펜(pen)의 위력을 발휘하신 고하 선생님이시어!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갈리어 관용과 용서, 소통과 상생보다는 서로 탓하고 위협하며 갈수록 대립각만 세워가고 있는 남과 북의 실상을 굽어 살피시고,

한민족의 지혜를 발휘하여 분단 극복과 인류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민족정기가 바로 선 우리의 당당한 역사를 후세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웃음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비웁니다.

편히 잠드소서.

2012. 5. 8.

광복회장 박 유 철